

# 군산, 백신접종 준비 박차

###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 구성... 올 11월까지 70% 이상 목표

군산시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군산시민의 70% 이상을 접종 목표로 코로나19 예방접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신속하고 차질없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을 위해 신현승 부시장을 시행추진단장으로 시행총괄팀, 백신수급팀, 접종기관운영팀, 대상자관리팀, 이상반응관리팀, 접종센터운영지원팀 등 6개팀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해 실무추진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특히 대규모 접종 대비 의료인력 지원 및 원활한 백신 수급과 안전한 접종을 위해 군산시의사회와 지역협의체 구성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백신은 종류별 특성에 따라 민간 위

탁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접종하며, 초저온 냉동고가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할 예정이다.

접종은 위탁의료기관과 접종센터에서 의료기관종사자, 65세이상, 고위험시설종사자 및 입소자, 대응요원을 우선 접종하고 만50~64세 및 2차대응요원, 일반성인(만19~49세)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고위험시설과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는 촉탁의 방문 및 위탁의료기관 내원 접종을 한다.

예방접종센터는 주차시설 및 대기장소, 응급의료체계지원 등이 잘 갖춰진 월명실내체육관으로 검토 중이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해서도 15~30분 정도 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신고관리, 모니터링, 기초조사 등 이상 반응 대처 및 관리와 응급 의료 대응을 위해 응급의약품 및 응급 처치장비 비치, 의료인 사전 교육, 구급차 상시대기, 응급의료기관 사전지정 등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불거피하게 발생하는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해 국가가 안전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전문위원회를 통해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사체에 대하여 국가 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신속하고 안전한 접종으로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차단과 이로 인한 시민의 피해 감소 및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이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 행복한 지역사회 만들기 '훈훈'

### 군산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 성금 200만원 기탁

어려운 이웃을 위한 아름다운 선행이 꾸준히 이어지며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군산시는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회장 박옥자)이 2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은 매년 청암산 숲 가꾸기, 수매철 농가 식사 봉사,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김치 담그기 봉사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웃 사랑,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박옥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비록

적은 금액이나 회원들의 참뜻과 정성이 모자라더라도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임준 시장은 "항상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해 주시는 옥산농협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등에게 지원될 계획이다. /군산=남현봉 기자

## 군산시, '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 추진

### 내고장상품 가이드북 활용, 정보 제공

군산시가 설명절을 앞두고 '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다.

'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취소된 행사 및 각종 모임 등 5인 이상 집합금지 사용이 불가하고 있는 단체·개인 회비를, 지역에서 판매하는 물품·서비스의 온·오프라인 구매를 통해 상품·서비스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이를 돌려주는 내용이다.

시는 '동네상품 사주기 캠페인'과 '내고장 상품 애용운동'을 병행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 19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고, 지역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착한 소비운동'의 일환이다.

우리동네 상품을 구입하고 싶으나, 정보가 부족한 시민들을 위해 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등의 생산품 및 관내의 백년가게, 착한가격업소, 모범음식점이 수록된 '2021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을 제공해 동네상품 사주기 등의 '착한소비 캠페인'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시는 '2021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 2,000부를 재경향우회 및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에 제공하여 상품 구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1 내고장 상품 가이드북은 군산시청 홈페이지(www.gunsan.go.kr) / 경제산업부 → 군산상품 → 군산 상품 가이드북에 게재해 시민들이 구입업체 확인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이중역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올해는 코로나 19와 체감물가 상승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기가 어렵다"며, "우리리에서도 동네상품 사주기 등의 착한 소비운동 확산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 기자

## 군산시,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누락 가구 없도록 집중 홍보

군산시는 그동안 자녀와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시는 위 노인가구와 한부모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돼, 신규수급자를 발굴하게 위해 설명절을

맞아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한다.

2월말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 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홍보에 누락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정도 지급된다.

김주홍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 지역 소식통

### 익산, 300개 업체 근로자 코로나19 선제적 검사

익산시는 지역 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지역사회 전파 차단에 나선다.

이번 선제적 검사는 지역 업체 300여 곳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검사는 오는 3일과 4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종합운동장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행된다. 검사 비용은 무료다.

이번 검사는 근로자 간 밀접도가 높아 무증상 전파시 지역 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시는 기업 내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검사 이후 확진될 경우 치료비 지원과 격리제재 후 근무 복귀가 가능함을 알려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 무연고 국가유공자 현충원 안장 거행

전북서부보훈지청(지청장 최정길)에서는 최근 무연고자인 6·25 참전 국가유공자(전상군경)를 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최정길 지청장은 당일 현충원까지 직접 영현을 봉송하고, 안장식에 참석하여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졌다.

이를 위해 군산시와 협조하여 유공자의 시신을 화장한 후, 무공수훈자회를 통해 영구용 태극기와 유골함을 전달토록 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2018년부터 유족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대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국가가 끝까지 책임을 다하고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국립묘지 안장을 시행 중에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